

Left21.com

2010년 11월 20일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특별 3호

리포트21

#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정당하다



17일 저녁 제1공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가한 현대차비정규직회 조합원들

사진 <노동과세계>

“우리는 정규직이다. 정몽구가 나와라”

울산 현대차 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외침이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은 10년 넘게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차별받고 억눌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설움을 견뎌야 했고,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절망해야 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2006년 포스코 점거 투쟁으로, 2007년 이랜드 매장 점거 파업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현대차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했다.

더구나 이 투쟁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고통전가에 신음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 간의 영웅적인 저항 속에 지퍼 올렸던 불씨가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속으로 옮겨 붙어 활

최근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과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위대한 저항 정신과 승리의 자신감이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몰아치고 있다.

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2008년 1백만 촛불항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었다. 이런 저항의 불씨들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빠지고, 집권 여당 내에서 온갖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틈을 뚫고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과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위대한 저항 정신과 승리의 자신감이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몰아치고 있다.

현대차는 한국 경제와 수출을 지탱하는 핵심 작업장이자, 민주노총의 오른팔로 불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작업장이다. 따라서 이 투쟁의 성패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배자들은 이 투쟁의

성패가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몽구는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이 투쟁을 짓밟으려 한다. 관리자, 경비대, 용역강패 등을 동원해 미친 개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4일 만에 노동자 5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과 노동부도 정몽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4가지 무기가 있다.

첫째, 우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시멘트 바닥에서 웅크려서 빵과 라면을 먹으면서도 점거 농성을 사수하며 불타는 눈빛을 잃지 않고 있는 투사들이 있다.

셋째, ‘비정규직은 내 친구고 동생이고 자식이다’, ‘비정규직이 무너지면 정규직도 무너진다’며 용역강패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몸으로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넷째,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으로 불길처럼 번져가는 전국적 연대 전선이 있다.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과녁을 향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싸우자.

#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자

- 현대차 울산 1공장 점거 파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 울산공장 내의 다른 공장들과 아산 전주 공장으로도 계속 점거와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지지금, 식량과 생필품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잔업 거부와 연대 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연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수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대 집회와 노동자대회를 건설해야 한다. 11월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과 함께 이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대표자들의 농성, 지지 서명과 모금, 신문 광고와 기사 기고, 연대 집회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한다.



17일 오후 정규직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울산 제1공장을 찾아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이렇게 합시다

- 자신이 속한 노조·단체·동아리·학생회 등에 제안해 파업 지지 성명 발표 등 연대 행동을 건설하자.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웹사이트에 투쟁 지지글을 올리고, 공장에 부착할 현수막과 대자보 등을 제작해 보내자.
-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hjbtw.jinbo.net> - E-mail : [hjbtw@jinbo.net](mailto:hjbtw@jinbo.net)

-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각종 사이트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 무차별 폭력 탄압에 매달리는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
-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 현대차 울산공장 052-280-2114
- 투쟁 지지금을 모아서 전달하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후원 계좌: 356-0389-6435-43 농협 예금주 임보라]



## 투쟁과 연대의 목소리

### 투쟁하는 비정규직은 말한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점거에 참가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사수할 테니 밖에서는 사측을 압박하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최성일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해답은 투쟁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연대해 주세요.” 박영현

“비정규직이란 사슬을 끊으려고 합니다. 가진 자들만 다 갖고, 없는 서민들은 죽으라 하는데, 내 아들, 내

형제라 생각하고 모두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4공장 조합원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 주세요. 우리의 투쟁은 우리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 동지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황호기

###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 목소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모두 같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한쪽에선 파업하고 한쪽에선 일하고 있으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사측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동석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웃으면서 살고 고통스럽지 않게 일하고 싶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철환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우리가 외쳤던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를 비정규직들이 지금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고, 함께 연대합시다.” 이상호

“평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도와줘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 [비정규직이] 같은 라인의 형과 동료들에게 전화한 번 걸고, 편지 한 통 써서 같이 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뭉치면 회사를 이길 수 있

습니다.” 김치영 대의원

### 가족들의 응원 목소리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지금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웁시다!”

“수백 명, 수천 명의 가장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의 일입니다. 밥줄이 달렸습니다. 생명줄이 달렸다고요. 저희 애들의 목숨이 걸렸다고요.”

“남편은 1공장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올지 않습니다. 승리하여 남편이 돌아오는 날, 10여 년을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다 흘리겠습니다.”

## 이경훈 집행부는 더 강력한 연대 건설에 나서야

현대차[정규직]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한다는 옳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경훈 집행부는 “단계적 해결”을 운운하며 김빠지는 얘기도 하고 있다. “불법 파견을 한방에 해결하는 것은 무리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당장 정규직이 연대 파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법원도 인정한 불법 파견 정규직화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모든 힘을 집중해 앞으로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정규직 조합원들까지 용역강패에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연대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집행부가 할 일은 아래로부터 연대 움직임을 받아 안고 더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사측은 1공장 휴업을 하고, 이 때문에 월급이 줄게 된 정규직이 비정규직 파업을 원망하게 만들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훈 집행부는 더 단호하고 강력한 정규직의 연대 투쟁과 파업까지 건설해 정몽구를 압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과 연대해 잔업 거부를 선언한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한다?

현대차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천5백억 원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 5천1백7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 돈의 10퍼센트면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정몽구의 주식평가액만 6조 원이 넘는다.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회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몽구가 가져갈 이윤이 줄어들 뿐이다. 그리고 이런 욕심 때문에 정몽구는 위기만 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내쫓으려 할 것이다. 실제 1998년 IMF 위기 때 정몽구는 1만여 명을 내쫓았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일자리를 지키려면 단결해서 강력한 노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젊고 활력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돼서 함께한다면 현대차 노조의 힘은 막강해질 것이고 정몽구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